

새 시대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한 학술·정책회의

4차 산업혁명 시대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  
한국 햇볕정책의 비전과 독일 동방정책의 유산

일시: 2017. 5. 26(금) 13-17시

장소: 한국외대 국제회의실 (오바마 홀 옆)

주최: 한국외대 역사문화연구소, 한국기록과정보·문화학회, (사) 행동하는 양심



## 프로그램

### 제 1부. 개회 세션 (13:00 ~ 13:40)

사회 조민지 (한국기록과정보·문화학회 편집이사)

개 회 사 : 노명환 (한국기록과정보·문화학회 회장)  
환 영 사 : 이근명 (한국외대 역사문화연구소 소장)  
환 영 사 : 이해동 (사단법인 행동하는 양심 이사장)  
축 사 :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  
영상축사 : Dr. Wolfram Hoppenstedt (독일 빌리 브란트 재단 사무총장)  
축 사 : Dr. Wieland Wagner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 아시아 특파원)

### 제 2부. 특강 세션 (13:50 ~ 14:50)

사회 박지배 (한국외대 역사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특강 - 햇볕정책과 동방정책: 현재와 미래를 위한 성찰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국정원장)

질의응답

### 제 3부. 발표 및 학술·정책 토론 세션 (15:00 ~ 17:00)

사회 및 패널 김홍국 (경기대 교수, 방송인)

#### 1) 발표 (40분)

1-1) 4차 산업혁명 시대 햇볕정책의 새로운 동력과 동방정책의 유산 (20분)

노명환 (한국외대 사학과/대학원 정보·기록학과 교수)

1-2)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리더십 구축을 위한 남북한 IT분야 협력:

‘남북협력을 통한 국제 기술 표준 리더십 확보’를 중심으로 (20분)

박춘원(위즈메타 CTO)

#### 2) 학술·정책 토론 (1시간 20분)

김면회 (한국외대 정외과 교수)

김시호 (연세대 신학박사)

김택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김한정 (민주당 국회의원)

임동욱 (한국외대 대학원 문화콘텐츠학 BK교수 / 사이언스 타임 기자)

최경환 (국민의당 국회의원)

저녁식사



# 목 차

번역 자료1: 영상 축사

볼프람 호펜슈테드 (빌리 브란트 재단 사무총장).....01

번역 자료2: 축사

빌란트 바그너 박사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 아시아 특파원).....02

특강: 햇볕정책과 동방정책: 현재와 미래를 위한 성찰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국정원장).....07

발표 1: 4차 산업혁명 시대 햇볕정책의 새로운 동력과 동방정책의 유산

노명환 (한국외대 사학과/대학원 정보·기록학과 교수).....11

발표 2: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리더쉽 구축을 위한 남북한 IT분야 협력: ‘남북협력을 통한 국제 기술 표준 리더쉽 확보’를 중심으로

박춘원 (위즈메티 CTO).....17

영문프로그램과 개요.....부록



간지



## 번역 자료1: 영상 축사

볼프람 호펜슈테드 (빌리 브란트 재단 사무총장)

번역 임동현 박사 (한국외대 사학과)

이번 국제 학술회의를 맞이하여 베를린 빌리브란트 재단에서 정다운 인사를 보냅니다. 저는 빌리 브란트 재단의 총괄이사인 볼프람 호펜슈테드(Wolfram Hoppenstedt)입니다. 빌리 브란트 재단은 미국의 대통령 도서관이나 또는 아시아의 첫 번째 대통령 도서관으로 알려진 김대중 도서관에 비견되는 학술기관입니다.

저를 포함한 재단의 구성원들은 8년 전 친애하는 노명환 교수의 노력으로 개최되었던 국제학술회의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2009년 5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그리고 아시아, 특히 한국의 상황과 관련된 국제회의가 열렸고 우리 재단도 참여했던 바 있습니다. 한국과 독일의 우수한 학술기관들이 주최하는 국제회의를 다시 한 번 조직하여 주신 노명환 교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는 8년 전 한국의 동료들이 베풀어주신 환대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더불어 아름다운 한국의 문화에 대한 인상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 동방정책의 설계자라 불리는 에곤 바르(Egon Bahr)는 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정책은 직접적으로 희망이 없는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결론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불편하고 우리가 느끼는 것에 반대됩니다. 그러나 논리적입니다. 현재의 체제를 변화시키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들이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 믿는 것은 환상입니다.”

이 말은 곧 북한의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에곤 바르의 생각은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 통일된 독일, 통일된 유럽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저는 에곤 바르와 빌리 브란트의 모델이 두 개의 한국을 위한 하나의 모델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한반도에서 양국의 관계는 2009년부터 악화일로를 걸어왔습니다. 교류가 끊기고 긴장이 고조되며 양국 간의 더 나은 관계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은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나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한편으로 북한과 공동의 이해를 도모하며 대화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햇볕정책이 필요합니다. 이 정책은 한반도에 평화를 안착시킬 것이고 세계를 더욱 안전한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한국 모두의 번영을 위한 기초를 놓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성공적인 학술회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번역 자료2: 축사

빌란트 바그너 박사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 아시아 특파원)

번역 임동현 박사 (한국외대 사학과)

무엇보다 먼저 이렇게 명망 있는 컨퍼런스에 저를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09년 5월에도 바로 이곳 서울에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저 역시 친애하는 노명환 교수의 초청으로 참석하였고, 그 기회에 여러분들 중 몇몇과도 이미 인사를 나눈 바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하시고 이틀 후 저는 그분의 자택을 방문하여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슈피겔지에 근무하면서 그분과 가졌던 세 번째 단독 인터뷰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1998년과 2000년에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만났을 때, 저는 그 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인터뷰가 될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토요일 아침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인터뷰를 갖기 몇 분 전에야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했던 생각은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인터뷰를 취소할 수도 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예정된 대로 인터뷰를 진행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깊은 슬픔을 내보이셨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다난한 토요일 아침에 인터뷰를 위해 많은 시간을 내 주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시작하려고 할 때 그분께서 제 말을 막으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냥 앉아서 차를 한 잔 드십시오. 말은 잠시 쉬시지요.” 저는 그분께서 이 충격적인 소식을 받아들이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세상을 떠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그분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시간이 흐르고 난 뒤, 우리는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83세였던 김대중 대통령은 정신적으로 완전히 깨어계셨고 그분께서 얘기하고 싶어 하셨던 주제, 그를 깊은 우려에 빠지게 만들었던 주제에 완전히 집중하셨습니다. 그것은 새로이 재개된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위험이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저에게 며칠 전 베이징에서 중국 정상과 가졌던 대화에 대해 그리고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과의 식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그분이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나누었던 얘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화 상대들에게 평양의 핵무기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상황이 극단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더 이상 북한과 협상하며 헛된 시간을 보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말은 대단히 비판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분이 햇볕정책으로 달성한 모든 성과와 그의 후계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했던 노력들이 허사가 될까봐 염려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의 새로운 지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었습니다. 보수주의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그의 선임자들이 이루어놓은 성과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갖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은 그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가속화하고 있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저에게 하신 설명에 따르면 북한 사람들은 미 대통령 버락 오바마에게 “실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자신들을 진

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러한 생각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분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중동, 이란, 러시아 그리고 심지어 쿠바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북한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전문가 집단이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터뷰는 그 당시에 실제로 펼쳐진 문제들에 대한 하나의 예언과도 같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아래에서 햇볕정책은 사실상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개성공단과 같은 중요한 프로젝트가 중지됨으로써 그리고 평양을 더욱 고립시킴으로써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간접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이 더욱 강화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각은 옳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사실상 한반도 문제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그의 정책을 “전략적 인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무관심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인터뷰 당일 아침 저에게 말씀하셨던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갑작스런 군사적 충돌의 위험은 이전보다 훨씬 커 보입니다.

그러나 만일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아직 살아 계셨다면 분단된 조국에 대한 작은 희망 또한 느끼셨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얼마 전에 일어난 정권교체와 관련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직후 저는 슈피겔지에 그에 대한 논평을 썼습니다. 제목은 “서울 출신의 빌리 브란트”입니다. 이 논평에서 저는 독일의 독자들에게 왜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이 기회를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독일인들이 그에게 공감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혹은 예전의 독일과 같은 분단국가에서 성장한 정치인입니다. 그는 북한에서 넘어온 가난한 피난민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학생으로서 그리고 이후에는 인권변호사로서 그는 정적들에게 간첩혐의를 씌워 탄압하던 대한민국의 독재정권에 대항해 싸웠습니다. 이후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아래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긴장완화정책에 참여한 바 있는데, 이는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 일명 “접근을 통한 변화”와 상당한 유사성을 지닌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의 빌리 브란트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 역시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과 같이 대한민국의 통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주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빌리 브란트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분께 다음과 같은 충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했던 것처럼 서두르지 마십시오.” 빌리 브란트가 의도한 것은 한국은 독일의 통일로부터 배워야 하고 또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두 개의 한국은 예전 두 개의 독일이 그랬던 것보다 훨씬 더 통일의 가능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서독과 동독은 서로 전쟁을 겪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독에는 핵무기로 세계를 위협하는 김정은과 같은 인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독일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한민국이 한국적 버전의 동방정책을 추구하기에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남한과 북한이 서로 대화하는 한 그리고 그들이 상호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한 양 측은 서로 충구를 겨누지 않을 것입니다.

빌리 브란트는 몽상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망명과 냉전 그리고 수많은 내부의 정치적 대립을 겪은 현실주의자였습니다. 빌리 브란트처럼 김대중 전 대통령도 강인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독재정권 하에서 옥고를 치렀고 사형선고로부터 구명되었습니다. 이 두 정치인은 자신들의 분단된 조국에 대해 깊

이 성찰하였으며, 성공적인 통일은 평화적인 수단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두 정치인 모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된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을 증명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면해있는 한반도의 상황은 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보다 더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품어왔던 평화에 대한 최선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컨퍼런스는 시의적절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논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thank you very much for the invitation to this prestigious conference. It is an honour to be here today.

I already met several of you when I participated in the previous conference in May 2009 here in Seoul – also on the invitation of my dear friend, Professor Noh Meung Hoan. At that time, late President Kim Dae Jung gave a speech at the conference. And on the following day I had the opportunity to visit the President at his home and do an exclusive interview with him. It was the third exclusive I had with the President for DER SPIEGEL – the first two interviews were in 1998 and in 2000. And I assume when I met the President in 2009 it must have been one of the last interviews he ever gave before his death.

I will never forget that Saturday morning. Only a few minutes before the interview I had learned of the death of former President Roh Moo Hyun. My first thought was that President Kim might cancel our interview because of this tragic news. To my great relief, the President received me as scheduled. However, he looked shaken and he expressed his deep sorrow about the loss of Roh Moo Hyun.

When I tried to start the interview – since I thought the President might not have much time on this eventful morning – he stopped me and said: “Let’s just sit and drink tea and be quiet for a while.” I think he still needed some time to absorb the shocking news, and it was his way of showing respect to the deceased President Roh.

After some time we started the interview and Kim Dae Jung – he was 83 – was fully alert and concentrated on the one big topic he mostly wanted to talk about that obviously deeply worried him: the renewed danger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Kim told me about his talks with the Chinese leadership which he had had a few days before in Beijing and about a conversation over a meal with Bill Clinton, the former US President. He also mentioned that he had spoken to Hilary Clinton who was the new Secretary of State of the USA. In all those conversations, President Kim explained to me, he had urged his counterparts to take the nuclear threat by the regime in Pyongyang seriously. The situation was extremely volatile, he said. Therefore, no further time should be lost to negotiate with North Korea.

President Kim sounded very pessimistic. It was obvious that he feared for everything that he

had achieved by his Sunshine Policy and also for similar endeavors that his successor Roh Moo Hyun had later pursued with the North.

Now, however, the new President Lee Myung Bak ruled in the Blue House; the conservative Lee did not seem to care about the achievements of his predecessors. Meanwhile, Kim Jong Il, the dictator in the North, accelerated his nuclear program. President Kim explained this to me as follows: The North Koreans, he said, were “disappointed” by US President Barack Obama. They felt they were not being taken seriously by the US. And President Kim agreed with this perception by the North. Obama, he said, seemed to be interested in all sorts of places – Afghanistan, Pakistan, the Middle East, Iran, Russia, and “even Cuba”. But as far as North Korea was concerned, Obama had even not yet formed a team of experts.

In retrospect, my interview with Kim Dae Jung seems like a prophecy of what then actually unfolded: Under Presidents Lee Myung Bak and Park Geun Hye the Sunshine Policy was indeed dismantled. By stopping landmark projects like Kaesong and by isolating the regime in Pyongyang ever more, Lee and Park indirectly pushed it to work even more ambitiously on its nuclear weapons programme.

And President Kim was right about Obama. The US President indeed did not show serious interest in the Korean peninsula. Obama called his policy towards North Korea “strategic patience”. But that was just another expression for indifference. The fears of President Kim which he told me about that morning have become true: North Korea has become a defacto nuclear power. And the danger of a sudden – even if unintended – military clash on the peninsula seems greater than ever.

However, if President Kim were still alive today he might also feel a little hope for his divided country. And that, of course, has to do with the recent change of government here in Seoul.

Right after the election of President Moon Jae In I wrote a commentary for DER SPIEGEL, entitled : “Willy Brandt from Seoul”. In that little piece I tried to explain to German readers why South Korea’s new president has earned a chance and why especially Germans could have some empathy for him: Moon Jae In is a politician who could only have been risen in a divided nation like Korea or Germany. He grew up as son of poor refugees from North Korea. As a student and later as a human rights lawyer he fought against the dictatorship in the South which harassed and imprisoned its opponents as alleged North Korean spies. Later, as chief of staff in the Blue House under President Roh, Moon took part in the policy of détente towards the North. That policy has obvious similarities with Willy Brandt’s “Ostpolitik”, the so-called “change through rapprochement”. And similar to Willy Brandt in the 1970s, President Moon faces great powers and neighbors – the US, China, Russia and Japan – who are not interested in the unification of his nation.

When Willy Brandt once met Kim Dae Jung he gave him the advice: “Don’t do it als hastily as we did.” By this he meant, Korea should draw the lesson from German unification and take its time. Unfortunately, the two Koreas seem to be much further away from the possibility of

unification today than the former two Germanys ever were: West and East Germany never fought a war against each other. And the former East Germany had no Kim Jong Un who threaten the world with his own nuclear weapons. Despite these fundamental differences between Germany and Korea, however, I think it is not too late for Korea to try out its own version of “Ostpolitik”.

The simple reason is: As long as both sides talk to each other, and as long as they develop mutual economic interests they at least don't shoot at each other.

Willy Brandt was no dreamer. He was a realist who experienced exile, the cold war and a lot of internal political fights. Similarly, Kim Dae Jung was a tough politician. He had experienced prison, and he only narrowly escaped execution during the dictatorship. Both statemen had reflected deeply about the division of their nations and both had reached the conclusion that successful unification can only be brought about by peaceful means. For that reason, each of them was awarded the Nobel Peace Prize.

The new President Moon still has to prove himself, and he faces a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at is much worse than at the time when I met President Kim Dae Jung last time. However, Mr. Moon is the best hope for peace that Korea had for a long time. And in that sense, this conference takes place at the right time. I wish us all a lot meaningful discussions.

Thank you.

간지



## 햇볕정책과 동방정책: 현재와 미래를 위한 성찰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국정원장)

오늘 <새 시대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한 학술·정책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 소중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주최 측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저는 베를린자유대학에서 ‘동방정책과 햇볕정책’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베를린자유대학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선언”으로 유명해진 대북정책을 발표한 곳입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빌리 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한 에곤 바 박사와 햇볕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한 제가 마주 앉아 대담 형식의 토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의 일환이었습니다. 김대중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처음으로 추천한 분이 다름 아닌 빌리 브란트 총재였고(1987.10) 두 분은 친밀한 교분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오늘 당시의 대담을 회상하며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독일통일을 산출한 동방정책** : 이 토론회에서 에곤 바 박사는 “독일통일은 흡수통일이 아니다” “‘흡수통일’이라는 말은 동독시민들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서독이 강요하고 끌어들이어서 통일한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독일 통일은 동독 시민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선택이었고, 동독시민들이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서독의 동방정책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독시민들은 시민혁명을 통해 공산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유 총선거를 실시하여 세 가지 통일방안 중 ‘병합에 의한 조기 통일’을 선택했습니다. 독일통일은 동독시민들이 통일방식을 선택하고 동-서독과 전승 4개국과의 협상을 통해 이룩한 ‘합의에 의한 평화통일’인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동독시민의 의식 변화와 마음을 움직인 것은 장기간 일관성 있게 꾸준히 추진한 서독의 동방정책이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서독은 브란트 정권 집권(1969)이래 동독 고립화정책을 버리고 평화공존하며 '접촉을 통한 변화' change through rapprochement를 추진했습니다. 서독은 20년 동안 매년 평균 32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막대한 현금과 물자를 다양한 명목과 경로로 동독에 지원하고, 매년 수백 만 명이 동-서독을 서로 왕래하는 등 접촉과 교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브란트 수상은 동독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민족통합national integrity을 유지하는 것이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동독시민들이 아침에는 공산당 신문을 읽고, 저녁에는 서독 TV를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동독시민들의 의식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민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2) 햇볕정책과 한반도평화프로세스** :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북한 동포들의 민심을 얻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 동포들의 의식 변화를 이끌고 마음을 얻기 위해 햇볕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동방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하지만 남북한은 독일과는 달리,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르면서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증오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화해와 신뢰 조성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승패의 게임을 상생하는 윈윈의 게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접촉, 교류와 협력을 통해 변화의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가야했습니다. 전쟁의 포성은 멎었지만 아직 법적으로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에서 심화된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군사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제도 해결해 나가야 했습니다.

니다. 전쟁을 막고 긴장을 완화하여 평화를 지킬 뿐 아니라 안보 불안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평화를 만들어 가야만 했습니다. 빌리 브란트 수상의 말처럼 “평화가 전부는 아니지만 평화 없이는 아무 것도 이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1998.2)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통일의 대로를 열어가겠다고 선언하고, 대북정책의 3대원칙으로 ①어떠한 무력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②흡수통일 할 생각이 없다. ③화해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천명했습니다. 평화를 지키면서 평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북한을 평화와 통일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화해 협력의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을 추진합니다. 이 정책은 남과 북이 더 이상 서로 냉전의 찬바람이 아니라 화해 협력의 따뜻한 햇볕을 비추자는 뜻으로 사용한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집니다. 햇볕정책은 화해와 협력을 통해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고, 평화를 만들어 가고자 한 것입니다. 화해 협력 변화 평화가 햇볕정책의 네 키워드입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남과 북이 서로 오고가고 돕고 나누며 분단으로 인한 거래의 불편과 고통을 최소화하고 평화공존하며 민족동질성을 회복해 나가고자 한 것입니다. 국내외정세가 정치적 통일을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선 경제·사회·문화적으로는 통일된 것과 비슷한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상황부터 구현해 나가고자 한 것입니다.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있던 집권 초기에 햇볕정책은 먼저 쉬운 것부터 시작하며(先易後難), 민간이 앞서서서(先民後官), 경제 분야부터 추진하고(先經後政),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다(先供後得)는 정경분리원칙에 의한 현실적인 접근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김대중 정부는 미국 클린턴 행정부에 대해 한국과 함께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자고 설득했습니다.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문제는 미-북 적대관계의 산물로서 대증요법(對症療法)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라는 근본적이고도 포괄적인 접근으로 평화프로세스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설득한 것입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면서 대량살상무기 문제도 해결해 나가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가자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한 것입니다.

클린턴 행정부는 김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했고, 일본정부도 이에 동참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유럽연합도 적극 지지하고 협력했습니다. 한·미·일 3국이 각각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관계정상화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노력을 시작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추진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진전을 배경으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어 <6.15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하게 됩니다. 미국도 북한과의 양자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하는 <미-북공동공고위니케>(2000.10.12)를 채택하고, 미-북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올브라이트 국무부장관이 평양을 방문하는 등 미-북관계도 급진전하게 됩니다. 일본 고이즈미 총리도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선언> (2002.9.17.)을 채택하고 수교협상을 추진합니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평화프로세스가 활기를 띠게 된 것입니다.

**(3) 남북 화해 협력 추진** :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하여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와 통일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 화해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게 됩니다.

남북의 두 정상은 진지한 대화를 통해 통일은 달성해야 할 목표지만 평화적으로 이룩해야 하며, 점진적·단계적으로 이룩해 나가는 ‘과정’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화와 통일의 긴 과정을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관리해 나가기 위해 협력기구인 ‘남북연합’confederation 구성의 필요성에 합의합니다. 남과 북이 서로 오고 가고, 돕고 나누는,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는 통일된 것과 비슷한 ‘사실상의 통일’상황부터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우선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여러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면서 상호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합의합니다.

이러한 공통인식에 기초하여 <6.15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하고 남북 교류 협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

다. DMZ 지뢰를 제거하여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하늘길과 바다길도 열었습니다. 분단 후 처음으로 사람과 물자가 남북을 오고가게 되었습니다. 동쪽에는 금강산관광단지, 서쪽에는 남북경제공동체의 발판이 될 개성산업공단(120여 남측 기업, 북측 노동자 5만여 명)을 건설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산가족이 상봉하고 여러 분야에서 왕래와 만남(44만 명) 교류 협력이 추진되었습니다. 교역과 경제협력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 매년 평균 2억4천만 달러 상당의 식량 비료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국민1인당 5천원/년)이 제공되었습니다. 서독이 동독에 제공한 규모(\$32억 달러/년)에 비하면 1/10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입니다.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체육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의 만남과 왕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고, 당국 간 대화뿐만 아니라 시민참여의 공간이 열리면서 서로 상대방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대의 식이 수그러들고, 긴장이 완화되고, 상호신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족공동체의식이 함양되면서 통일엔 접촉과 왕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현재진행형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반세기 불신과 대결의 시대를 넘어서 처음으로 화해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갈 길은 멀고 험난하지만 소중한 출발을 한 것입니다.

에곤 바 박사는 ‘남북연합’을 통한 통일방안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동독에서 시민혁명 직후 통일문제가 논의될 때 서독 헬무트 콜 수상은 통일후유증을 우려하여 과도적 단계의 ‘국가연합’을 통한 점진적 단계적 통일방안(89.11.28)을 제시했으나 동독시민들은 즉각적인 통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또 서울 방문 때 현장에 가본바 있는 개성공단 사업을 대단히 높이 평가하며 그것을 확대 발전시켜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려는 것은 대단히 현명하고도 미래지향적이며 평화통일로 가는 올바른 길이라고 극구 칭찬했습니다.

**(4) 남북관계 경색과 동방정책의 교훈** : 하지만 지난 9년간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화해와 교류 협력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중단되었습니다. 미국 부시 행정부가 출범하여 북한정권을 이라크 이란과 함께 ‘악의 축’ axis of evil이라며 군사적 선제공격preemption으로 제거regime change 해야 할 대상으로 선포하고 적대정책을 추진합니다. 클린턴 행정부의 포용정책과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전면부정하고(ABC), 8년간이나 북한 핵 활동을 동결시킨 <제네바 미-북기본합의>도 파기했습니다. 북한이 체제생존을 위해 억제력을 확보한다며 본격적인 핵개발에 나서게 되면서(2003.1) 한반도의 긴장은 고조되어 갔습니다.

한국에서는 보수정권(이명박-박근혜)이 집권하면서 북한이 조만간 붕괴될 것으로 오판하고 ‘흡수통일’을 위해 압박과 제재의 ‘적대적 대결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동방정책을 20여년간 일관되게 추진했던 서독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정권이 교체되자 화해협력의 햇볕정책은 부정되고 그 동안 이룩한 남북합의는 모두 목살되었습니다. “햇볕정책은 유화정책이다” “안보태세를 악화시켰다” “퍼주기다” “핵무기 개발을 초래했다”는 등 사실을 왜곡한 비판과 반대가 거세지면서 평화와 화해협력 주창자들을 “친북좌파”로 비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에곤 바 박사는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과 일부 반대에 대해 이해가 간다며 동방정책도 초기에는 야당과 언론의 맹공격을 받았고 인기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브란트 수상과 에곤 바 박사는 친공적이라는 비난도 받았다고 합니다.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었고 서로 강한 적대의를 갖고 있는 한국은 서독의 경우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며 이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 CSCE(유럽안보협력회의)의 대탕트 프로세스가 추진되면서 ‘동방정책이 옳다’는 것을 전 유럽이 인정하게 되고 서독 국민들의 지지도 높아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동방정책을 반대했던 보수우파도 집권(1982) 후에는 동방정책을 계승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동방정책은 단순히 동독에 국한된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에 대한 정책이었습니다. 동서진영으로 분단된 유럽에서 냉전이 치열하던 때인 1969년에 집권한 빌리 브란트 수상은 유럽에 평화질서가 조성될 때에 비로소 그 틀 안에서 독일의 통일도 가능할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외교적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서독은 소련과 폴란드 등 동구권 국가들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여, 동서진영을 가로막고

있던 ‘철의 장막’을 걷어내고 평화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동방정책은 동-서진영 35개국에 참가한 헬싱키협약 체결(1975)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CSCE에 의한 15년간의 화해 협력의 데탕트프로세스가 진행되면서 소련의 개혁가 고르바초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개혁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소련과 동구권에서 체제전환이라는 대변혁이 일어나고 냉전체제가 흔들리면서 마침내 독일통일의 환경이 조성됩니다.

에곤 바 박사는 “서독의 동방정책 없이는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최고지도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고, 또한 고르바초프 없이는 독일통일도 불가능했을 것이다”라는 주장은 옳은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동방정책은 독일통일뿐만 아니라 유럽의 새로운 평화질서 구축과 유럽 통합(EU)을 가능케 한 추동력이 된 것입니다.

유럽과는 달리 동북아는 지역안보협력체가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서 유일한 지역입니다. 북핵문제를 다루기 위해 미·중·러·일과 남북한이 참여한 6자회담이 동북아 안보 협력체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아직은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에곤 박사는 “두 코리아가 힘을 합쳐 선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북아 평화공동체 안에서 코리아 통일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남북한 관계 발전이 긴요하다며 “강자요 가진 자인 남한의 아량과 적극성이 중요하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5)당면과제** : 그 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적 정세는 많이 변했습니다. 동북아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재균형전략, 일본의 재무장으로 갈등과 긴장이 조성되면서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평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핵개발을 중단했던 북한은 핵무장화 단계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동북아 평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적 정세는 변했지만 우리의 목표와 원칙은 같습니다. 한반도냉전구조를 해체하고 교류 협력을 통해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관계정상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어야 하며 군사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한국의 새 정부는 화해 협력의 햇볕정책을 오늘의 현실에 맞게 계승 발전시키며 지난 9년간의 역주행을 멈추고 다시 평화와 통일을 향해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다시 추진해야 합니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미-중 협력관계의 기틀을 제공할 수 있으며 동북아평화질서 구성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동북아 평화 질서 구성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없이는 동북아 평화가 보장될 수 없습니다.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독일통일을 산출한 동방정책을 본받고 CSCE의 경험을 교훈으로 받아들여 햇볕정책을 계승 발전시키며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임 동 원

육군사관학교 교수/ 육군 전략기획처장/ 육군소장 예편

주 나이지리아대사/ 주 호주대사/ 외교안보연구원장

통일원차관/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남측 위원장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현. 한반도평화포럼 공동이사장/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

저서 ; 임동원 회고록 <피스메이커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25년> 2015. 창비

간지



## 발표1

# 4차 산업혁명 시대 햇볕정책의 새로운 동력과 동방정책의 유산

노명환 (한국외대 사학과/대학원 정보·기록학과 교수)

발표자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민주주의의 심화와 분단 상황의 극복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특별히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햇볕정책을 앞으로 있을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파급효과와 연계지어 살펴본다. 민주주의와 분단극복을 위한 비전과 동력이라는 관점에서 햇볕정책과 4차 산업혁명의 상호 작용 관계가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독일의 제4차 산업혁명을 동방정책의 유산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한다. 더불어 한국의 햇볕정책과 4차 산업혁명의 상호 작용을 위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 I. 햇볕정책의 본질과 목표

앞의 임동원 전 장관님의 특강에서처럼 햇볕정책의 목적은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키고 적대와 전쟁 위험의 현실을 교류와 협력을 통한 화해와 평화의 미래 방향으로 전환시키는데 있다. 즉, 햇볕정책은 이전 서독의 동방정책처럼 ‘접근을 통한 변화’의 정책을 통해 상생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북한에 대한 접근을 통하여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한 동시에 남한 사회를 보다 안정되고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발전시켜 가고자 한다. 상호 소통과 작용을 촉진시키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세계의 현실에 대해 눈뜨게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남북한 주민들 간의 민족 동질성에 대한 자각을 일깨우고자 한다. 이와 함께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햇볕정책을 통해 무엇보다도 전쟁준비의 위험성과 무가치성에 대해 경고하고, 평화와 풍요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핵무기 개발을 불필요하게 느낄 수 있는 화해와 평화적 교류의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 따라서 햇볕정책은 남북한 상호 연계의 정책(linkage policy)이고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연계와 포용, 그리고 ‘접근을 통한 변화’의 전략은 무엇보다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정책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계와 포용 정책은 강력한 방위 능력과 국제적 동맹 체제를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가운데 남북한은 보다 더 긴밀히 연계되지만, 더욱 뚜렷한 차이점을 인식하게 되고, 넓고 깊은 그리고 지속적인 충돌과 갈등을 겪게 될 수 있음을 또한 햇볕정책은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여하히 이러한 충돌과 갈등의 상극을 극복하고 상생의 미래를 열어 가는가가 궁극적인 성공의 열쇠라고 말할 수 있다. 햇볕정책을 추진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상극을 상생으로 조화시키는 관점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아시아의 민주주의, 세계 민주주의, 지구 민주주의라는 민주주의 개념과 단위의 확대를 내다보았다. 특히 그는 지구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이분법적 대립 관계를 상생의 관계로 파악하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역설했다.

바로 이러한 햇볕정책의 성격 때문에 다음에 설명하는바 초 연결 사회를 이루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좋은 토양으로 작용할 수 있다. 햇볕정책을 추진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남북한 철도 및 유라시아 철도를 잇는 ‘철의 실크로드’와 함께 ‘정보의 실크로드’의 비전을 제시했는데, 이는 오늘날 햇볕정책과 4차 산업혁명을 연결시킬 수 있는 논리적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의 매개체로서 IT분야의 중요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긍정적인 파급효과와 사이버 안보의 필요성 사이의 간격을 융합적으로 잘 극복하는 정책상의, 기술상의 발전을 이룩해 가야 할 것이다.

## II. 독일의 4차 산업혁명과 상극·상생의 원리

독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어떠한 것인가? 어떻게 해서 이것이 위에서 설명한 한국 햇볕정책의 동력이 될 수 있는가? 왜 독일의 4차 산업혁명은 햇볕정책을 위한 새로운 비전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가?

독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개방과 공유의 원리에 기초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참여 민주주의의 심화라는 사회적 현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하여 4차 산업혁명은 독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을 참여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급격히 바꾸고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을 포함한 최첨단 기술이 융합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인간의 삶을 황폐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독일에서 참여 민주주의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독일에서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의 첨단 기술에 기초하여 사람과 사람은 물론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플랫폼 시스템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계·융합되고 있다. 생산과 유통 및 소비 환경과 구조가 새롭게 조직되고 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변화상을 소위 “산업(Industrie)4.0”에 의거한 생산 시스템인 “스마트 공장(Smart Factory)”이 잘 보여주고 있다. 스마트 공장에서는 생산, 유통 그리고 소비를 최고로 효율적으로, 즉 최적화하기 위해 개방과 공유 그리고 참여의 원칙에 따라 기업들은 물론 사회 및 정부가 연계·융합되어 가고 있다. 기술적으로 보면 각 기관을 대표하는 수많은 플랫폼들이 상호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플랫폼들은 크게 기술 플랫폼과 의사소통 플랫폼으로 나뉘고, 이들은 상호 작용하면서 작동하고 있다.

### 1. 기술 플랫폼

기술 플랫폼은 사물인터넷에 의거한 모든 종류의 센서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한다. 그리고 인공지능에 의거하여 이를 분류·정리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한다. 그 결과 생산, 유통 등에 필요한 가장 합리적인, 즉 최고로 효율적인 업무 방식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기술 플랫폼에서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사이버 보안, 자율로봇, 시스템 통합, 가상 증강 현실, 시뮬레이션, 3D프린팅 등의 기술들이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에서 보듯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하여 최적화의 업무 행위를 산출한다. 그 중에 블록체인은 가까운 장래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초 연결 사회의 신용 거래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즉, 블록체인은 비즈니스를 통한 초 연결 사회를 구축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발표하실 박춘원 선생님이 자세한 설명한 주실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서 설명한 햇볕정책의 목표 및 동력과 관련하여 박춘원 선생님의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남북협력을 통한 국제 기술 표준 리더십 확보’라는 주제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라고 생각된다.

### 2. 의사소통 플랫폼

기술 플랫폼의 작동 결과로 제공되는 ‘최적화를 위한 정보’에 기초하여 의사소통 플랫폼에서 각계 대표들은 업무의 실현을 위해 의사결정을 한다. 협의와 합의의 과정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각 대표자들이 개별성을 존중하면서 공동체를 지향하는, 또한 역으로 공동체를 존중하면서 개별성을 지향하는 상생의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공정한 토의 과정을 거쳐 합의점에 신속히 도달할 수 없다. 각 구성원들의 토론과 합의 내용은 플랫폼들을 통해 또한 사회 전반으로 신속히 확산된다.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은 물론, 특히 정부와 각 행정 주체들에 의해 공유되고, 검토되고, 지원된다. 이러한 공정하고 신속한 협의와 합의를 이루어낼 수 없고, 사회 전반에서 공

유할 수 없으면, 기술 플랫폼의 작동 결과는 쓸모가 없거나 독재적인 방식으로 힘의 논리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이는 조지 오웰이 『1984년』이라는 소설에서 묘사한 독점적인 감시와 통제의 빅브라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

독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이 의사소통 플랫폼이 비교적 잘 작동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의사소통 플랫폼 제도는 독일 사회의 “참여 민주주의적 성격”을 본원적으로 심화·확대시키고 있다. 나아가 자동화 과정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 이는 상호 소통을 통해 기존의 일자리를 나누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 4.0”과 더불어 “노동 4.0”,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맞는 인재들을 길러내기 위해 “교육 4.0”이 가동되고 있다. 이 교육에서는 첨단 기술에 대한 교육은 물론 개방과 공유, 참여, 배려와 합의 그리고 협력 속에서의 경쟁, 경쟁 속에서의 협력 등을 위한 사회적 자질 교육이 이루어진다.

사회 전체가 연계되면서 충돌과 갈등이 깊고 넓게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충돌과 갈등을 조화로 융합시킬 수 있는 능력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교육 4.0에서 학생들이 이러한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노동 4.0에서도 이러한 능력을 실천하고 지속적으로 심화시킬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상호 소통과 이해의 능력이 확대되고 개방과 공유를 위한 자질이 사회 전체적으로 확충되고 있다. 이는 독일 사회에서 실제로 참여 민주주의의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독일의 4차 산업혁명은 사회 전체적으로 빠르게 연결사회를 실현해 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극을 상생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축적해 가고 있다.

이리하여 독일인들은 4차 산업혁명에서 기술이 핵심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말한다. 핵심적인 것은 상극과 상생이 조화를 이루는 의사소통 플랫폼의 공정하고 신속한 작동에 있다고 본다. 극단적으로 말해 필요한 기술을 자신들이 개발하지 못하는 경우, 그들은 이 기술을 다른 국가에서 구입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갈등을 극복하는 의사소통 플랫폼의 효율적인 작동 없이는 제 가치를 발휘할 수 없다고 본다. 경우에 따라 이 기술은 사회에 무서운 재앙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점이 현재 4차 산업혁명을 진행시키고 있는 독일에서 노동4.0 과 교육4.0에 역점을 두고 있는 이유다. 독일에서 기술 플랫폼과 의사소통 플랫폼의 상호 작용은 첨단 기술과 참여 민주주의의 사회의 상호 작용을 더욱 촉진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 III. 독일의 4차 산업혁명에서 찾는 한국 햇볕정책의 동력과 비전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이 한국에서 실현될 수 있다면 교류와 협력을 통한 평화와 통일을 추구하는 남북한 관계에서 획기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면서 평화통일의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의 예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 세계적 차원의 초 연결 사회가 형성되고, 동시에 세계 차원의 민주주의 공동체를 꿈꾸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오히려 이렇게 초 연결 세계 사회에서 테러와 각종 범죄 등 위험성이 크게 증폭될 수 있다. 연계를 통해서 각 구성원들 간의 충돌과 갈등이 매우 위험스러운 상황으로 표출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세계는 이러한 위험성을 통제하고 공동의 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함께 치열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4차 산업혁명은 세계 공동체 사회로의 변혁을 위한 파급효과를 크게 발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진행되는 국제적인 초 연결 사회에서 남한은 물론 북한도 예외로 남아 있기 힘들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남과 북이 보다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연계는 충돌과 갈등을 넓고 깊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충돌과 갈등이라는 상극의 상황을 상생으로 융합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한다면 한국은 세계적

인 4차 산업혁명에서도 잘 적응하고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러한 가운데 햇볕정책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평화, 그리고 민족통일의 과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관건은 독일식 4차 산업혁명에서 필요한 상극을 상생으로 조화시키는 능력을 한국인들이 얼마나 성숙하게 함양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능력을 갖추어 나가면서 독일식의 4차 산업혁명을 정착시킬 수 있다면, 한국인들은 햇볕정책을 위해 좋은 실천 동력을 제공받고, 미래 비전의 좌표를 정립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즉, 성공적으로 정착되는 독일식의 4차 산업혁명은 햇볕정책이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접근을 통한 변화’의 파급효과를 대단히 효율적으로 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 간에 전반적으로 이를 위한 매우 효율적인 여건과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햇볕정책의 진전과 이를 통한 상극을 상생으로 조화시키는 능력의 훈련은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을 또한 성공적으로 수행해 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 IV. 독일 동방정책의 유산으로서의 독일 4차 산업혁명

그러면 독일의 4차 산업혁명을 동방정책의 유산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독일인들이 의사소통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즉 상극을 상생으로 융합시킬 수 있는 이 능력의 원동력은 어디에서 유래하는가?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우선 서독의 독일인들이 나치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 속에서 ‘다양성 속의 통일’의 가치를 중시하면서 참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크게 깨닫고 실천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수행된 동방정책이 적대와 상극의 냉전과 분단 시대를 교류와 협력의 관계를 통해 상생의 관계로 융합해내고자 했다. 이러한 전통에서 빌리 브란트는 동방정책을 추진했다. 동방정책을 추진한 빌리 브란트 수상은 일찍이 나치시대에 저항한 망명시기부터 세상은 서로 다른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이 서로 충돌과 갈등을 야기하지만 결국은 이를 극복하고 서로 ‘다양성 속의 통일’의 원리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이고,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는 철학을 가졌다. 그는 그의 이러한 철학을 수상이 되어서 동방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실현하고자 하였다. 분단된 독일의 상황을 정상화 시키는 데, 서독과 동독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연계되어야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돌과 갈등의 상극을 극복하고 상생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관점에서 적대감에 기초한 일방적인 안보 시스템의 구축 보다는 상호 인정과 협력의 공동 안보 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철학으로 그는 구체적으로 ‘접근을 통한 변화’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면서 그는 분단된 독일의 동서독 관계는 충돌과 갈등을 극복하고 조화를 이루어내는 훈련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장이라고 역설했다. 그래서 독일의 분단 극복 과정은 독일인들이 세계평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과정이 된다고 설명했다.

분단된 독일은 이러한 동방정책의 효과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었고, 통일 후에도 이러한 동방정책의 가치를 전 사회에 실현하고자 노력했다. 독일인들이 산업의 구조적 문제, 경제 문제, 실업문제를 총체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4차 산업혁명을 구상해 가기 시작할 때, 그들이 신뢰했던 자산은 독일의 바로 이러한 상극을 상생으로 조화시켜내는 능력의 역사적 자산이었다. 그들이 의사소통 플랫폼을 구상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다고 확신한 배경에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독일의 현 4차 산업혁명을 동방정책의 유산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겠다. 그런가 하면 독일 통일 후 완전하지 못했던 사회통합을 현재의 4차 산업혁명이 앞에서 설명한 의사소통 플랫폼의 파급효과에 의거하여 완전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

즉, 독일이 통일 후 직면했던 이전 동독과 서독 사이의 정체성의 문제를 현재의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치유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근 50년 전부터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에 기초하여 ‘접근을 통한 변화’를 추구했던 동방정책의 가치를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재 보다 광범위한 차원에서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산업4.0과 함께 노동4.0과 교육4.0은 개방과 공유 및 협력

의 공동체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사람들의 의식변화를 발전시켜 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동방정책의 유산과 현재의 4차 산업혁명의 상호 작용관계는 한국의 햇볕정책과 4차 산업혁명의 상호 작용을 위해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하겠다.

## V. 한국 햇볕정책의 비전과 독일 동방정책의 유산

지금까지 설명한 측면에서 볼 때 한국에서 진행될 4차 산업혁명도 햇볕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토양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햇볕정책은 독일에서 동방정책이 그랬듯이 남과 북이 상극을 넘어서는 상생의 조화를 이루어 가게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햇볕정책의 접근을 통한 변화의 전략은 충돌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를 극복하고 조화를 창출할 수 있는 비전과 신념을 가져야 한다.

그 중에는 구체적으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통해 남한의 완전한 민주화 실현과 북한을 민주주의로 인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리하여 남과 북이 동북아, 동아시아, 유라시아, 나아가 전 세계 및 지구 민주주의로의 발전과 함께 개방과 공유, 상극과 상생의 조화 속에서 민족의 동질성을 찾아가는 비전을 담고 있다. 또한 햇볕정책은 이러한 비전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독일의 동방정책이 그랬던 것처럼 현실적으로 강력한 방위태세와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동방정책의 유산으로서의 독일의 4차 산업혁명을 주시하고 한국의 햇볕정책과 4차 산업혁명을 상호 연계하여 추진해갈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은 햇볕정책을 위한 좋은 토양으로서 작용할 수 있고, 햇볕정책을 통해 획득되는 민족적 차원의 상극과 상생의 조화 능력은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좋은 자양분이 될 수 있다.



간지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리더쉽 구축을 위한 남북한 IT분야 협력: ‘남북협력을 통한 국제 기술 표준 리더쉽 확보’를 중심으로

박춘원(위즈메타 CTO)

남북한 ICT 협력 연구-2006년도까지만 활발

<표 1-1> 남북한 ICT 협력 연구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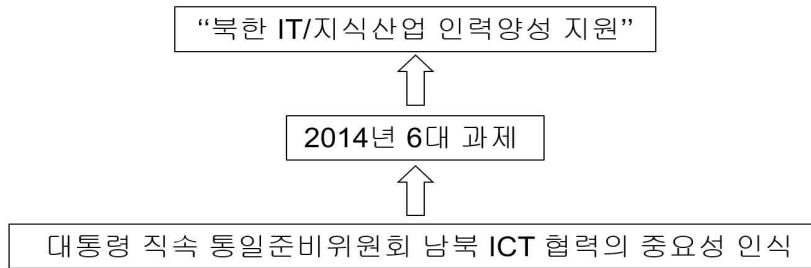
순	연구자	제 목	기 관	연도
1	통일IT포럼	남북통합시대, 정보기술의 역할	통일IT포럼	2000
2	통일IT포럼	북한에서의 정보기술 역할	통일IT포럼	2000
3	이춘근	북한의 첨단기술(IT, BT) 개발동향 조사연구	과학기술부	2001
4	통일IT포럼	북한의 IT현황 및 남북교류 협력방안	정보통신부	2002
5	남성욱	북한의 IT산업 발전전략과 강성대국 건설	한울 아카데미	2002
6	신일철	새터민 정보화 실태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5
7	이춘근	남북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접근방안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6
8	ICA	가상교육을 이용한 북한 IT 인력 양성 및 활용에 대한 연구	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	2006
9	ICA	중소 IT 기업의 북한 진출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실무 프로세스 연구	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	2006
10	한신대학교	북한 정보통신기술 실태조사 및 남북한 정보통신 기술표준 교류협력 방안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09
11	이춘근	북한의 과학기술 수준 및 관심분야 분석	통일부	2009
12	김중선	남북한 과학기술 혁신체제 연계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
13	김중선	통일 이후 남북한 과학기술 통합전략을 위한 사례 조사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3
14	이춘근	통일시대 준비를 위한 미시적 종합연구 (과학기술, 정보통신, 에너지 분야)	통일연구원	2014

남북 ICT 협력 추진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12.30) 3P

## ● 드레스덴 선언-(2014년 3월 28)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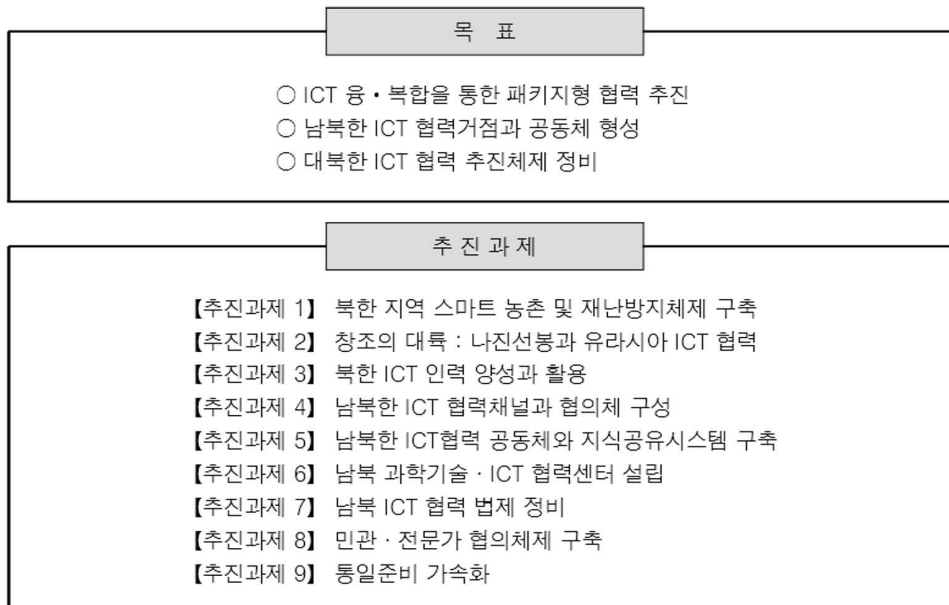
- 남북한 주민들의 문제부터 해결해 가야 한다. (Agenda for Humanity)
-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한다. (Agenda for Co-prosperity)
-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에 나서야 한다. (Agenda for Integration)



3

WizMeta

## ● 정부차원의 남북한 ICT 협력의 목표와 추진과제



남북 ICT 협력 추진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12.30) V

4

WizMeta

## ● 단계별 사업 추진

단계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상황	남북관계 현상 유지	남북대화 활성화 (5.24조치 해제)	포괄적 협상 타결
남북 대화	정부	단 절	중양정부 주도 (개별부처 보조)
	민간	분야별 유지 (강력한 통제)	정부/민간 공동사업
주요 추진과제	* 민생분야 협력 * 법제 정비 * 통일 준비	* 다자간 협력 * ICT 인력양성/활용 * 협력채널 구축 * 민간협의체 구축	* ICT공동체/ 지식공유시스템 * 협력센터
예산 규모	10억~20억 원 (미래창조과학부 + 기관고유사업)	200 ~ 300억 원 (미래창조과학부 + 통일부)	1,000억 원 (국가연구개발사업)

남북 ICT 협력 추진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12.30) V

5

WizMeta

## ● 중점추진과제와 세부 추진과제

순	중점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
1	북한 스마트 농촌 및 재난방지체제	* 스마트농촌 시범단지 조성 * 산림, 어업, 의료 기술이전/공동연구 * 기상예측 및 재난방지 지원
2	창조의 대륙 : 나진 선봉과 유라시아 ICT 협력	* 지능형 철도, 도로, 출입국, 물류 * 나진 선봉지역 통신사업 * 러시아, 중국 접경지역 ICT 단지
3	북한 ICT 인력 양성과 활용	* 개성공단, 제3국 북한 ICT 인력양성* * 북한 내 ICT인력 양성(평양과기대 등) * 활용 : S/W, 애니메이션 개발단지*
4	남북한 ICT 협력채널과 협의체 구성	* 미래창조과학부/북한 국과위 협력창구 * 국가과학기술연구회/북한 국가과학원 협력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계
5	ICT협력 공동체와 지식공유시스템	* 지식 공유, 기술이전* * 사이버공동체 : 원격교육, 화상진료 * 북한 지역 개방혁신(Open Innovation)

6

WizMeta

## ● 중점추진과제와 세부 추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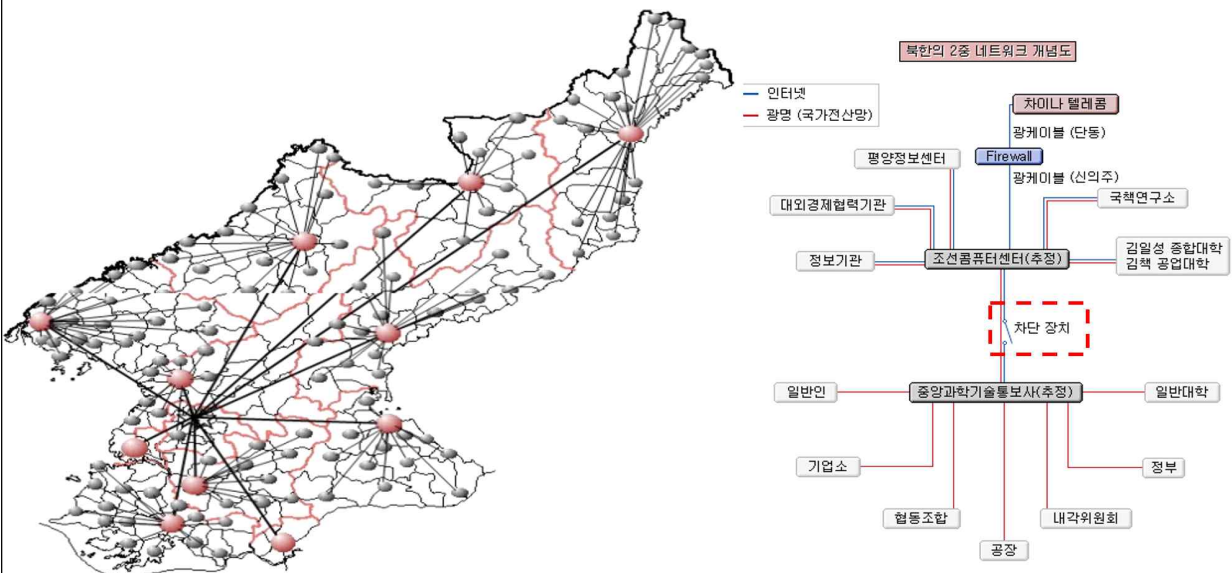
순	중점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
6	남북 과학기술 · ICT 협력센터 설립	* 공동사무실, 국제회의장, 숙소, 교육훈련 * 전자도서관(국제자료검색), 전자출판사 * 분석/측정센터, 상설 전시장, 창업보육
7	남북 ICT 협력 법제 정비	* 남북과학기술 · ICT협력기본계획 수립 * 남북과학기술 ICT협력사업 확충 * 예산, 조직 확대
8	민관 · 전문가 협의체제 구축	* 통일부 정부위원협의회 미래부 참가 * 미래창조과학부/전문가 협의체 구성 * 전문기관 지정,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 *
9	통일준비 가속화	* 체제 통합, 인프라 구축과 격차 해소 * 원자력 설비 해체, 전문가 전직 계획 * 북한이탈주민 정보화교육, 심화교육

7

WizMeta

## ● 북한 ICT 현황 – Network Infra

- 평양에서 전국 각 도청소재지까지 3GB 이상 용량의 광케이블 연결
- 각 리 단위까지도 1GB 이상의 고속 통신망 구축
- 탈북 새터민 전언에 의하면 언제라도 대외 Internet 망으로 연결 가능 체계 구축 되어 있다 함



8

WizMeta

## ● 유/무선 통신 Inf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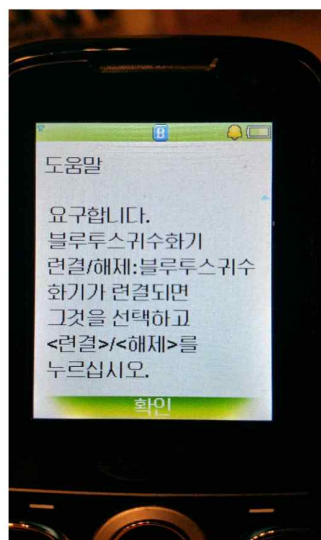
- 탈북 새터민 전언에 의하면 유선 통신은 전자 교환 방식 북한 전역 100% 보급
- Mobile은 평양은 물론 지방 대도시급까지 보급
- 태국 록슬리퍼시픽에 이어 이집트의 오라스콤(Orascom)이 북한 지역에 휴대폰을 공급하면서 그 수요가 크게 증가, 약 300만 가입자로 추정



9

WizMeta

## ● 유/무선 통신 Infra



10

WizMe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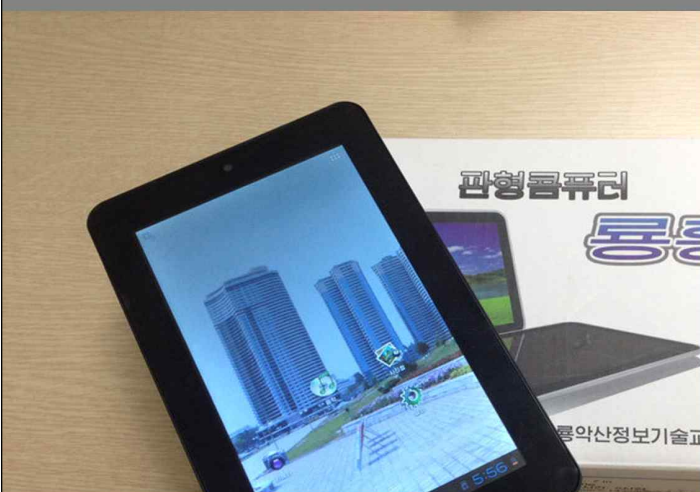
## HW : Tablet – 삼지연



11

WizMe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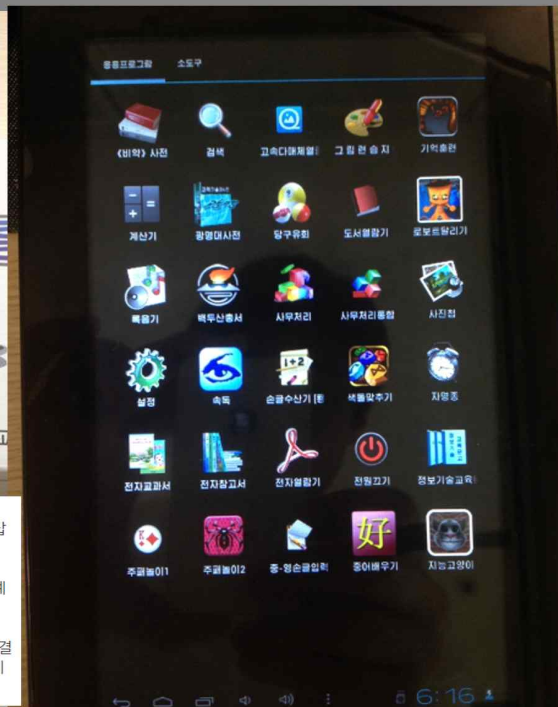
## HW : Tablet - 룡흥



북한이 지난 2013년 출시한 '판형컴퓨터' 룡흥은 구글 안드로이드 체제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백두산 총서' 등 김일성과 김정일의 저작을 모아놓은 주체사상 학습 애플리케이션이 기본으로 탑재된 것이 특징으로 꼽힌다.

나머지 애플리케이션은 대부분 교육용과 게임용이다. '그림연습자', '복음기' 및 카메라, 사진첩, 계산기 등 모바일 기기 기본 기능도 탑재됐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점은 이 태블릿 PC에 우리 부품이 들어갔다는 점이다. NK지식인연대 분해 결과 SK 하이닉스 메모리 2개가 장착돼 있었다. 김홍광 NK 지식인연대 대표는 "북한이 중국에서 기판을 통째로 들여와 태블릿 PC를 만들면서 남한산 메모리가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2

WizMeta

## ICT 인력 양성

- 전공학문과 생산현장의 긴밀한 연계를 중요시

- 기초교육,
- 기술 활용교육,
- 융합 IT 교육,
- 전공 교육,
- S/W 수재교육의 5가지 형태

- 각 도에 수재학교인 제1고등중학교 설립 우수한 설비를 활용해 컴퓨터 등의 첨단과목을 조기에 교육 이들을 중점대학에 진학시켜 ICT 전문인력으로 양성

(고등중학교 졸업 후 군에서 10년 이상 복무하고, 대학 진학자들도 7년 정도 복무 후에 추천을 받아 진학한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ICT 고급인력 양성이 상당히 파격적)

- ICT 교육이 가장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실시되는 중점 대학은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과학원 산하의 이과대학, 평양컴퓨터기술대학, 함흥컴퓨터기술대학, 희천체신대학 등

## 4차 산업 혁명 시대 남북 ICT 협력

“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의 진화 ”

- 다보스포럼, 2016 -



## 4차 산업 혁명 시대 남북 ICT 협력

- 협력 원칙 :
  - 철저하게 정경 분리 원칙하에 민간 부문간 경제 협력 사업으로 추진
  - 남,북 한 양측의 장점을 결합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4차 산업 혁명기 **Global Leadership**을 남북한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확립 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
  - 점진적 단계적 접근을 통한 상호 신뢰에 기반한 협력 체계 구축
- 남한의 우수한 ICT Infra 와 북한의 우수 ICT 인력의 결합으로 시너지 극대화 추진
- 개성공단 북한 ICT 인력 양성 사업
- SW, Animation 개발 단지 – 임가공 사업
- 지식 공유, 기술 이전
- 전문기관,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

15

WizMeta

## 2016.2.10 개성 공단 조업 중단 실효성 의문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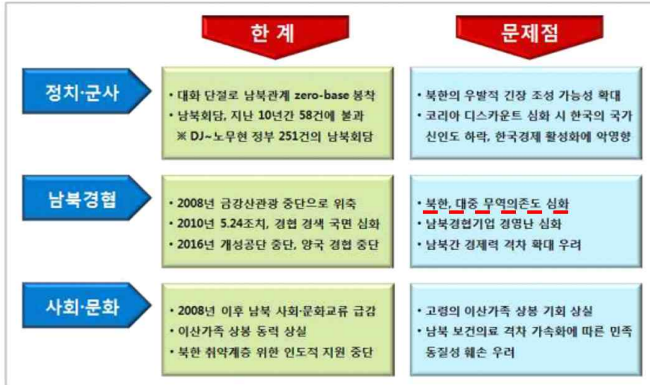
16

WizMeta

## 개성 공단 활용 사업

- 현재는 중국 좋은 일만 시키고 있는 결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 남북관계 단절의 한계와 문제점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 개성공단 재개 관련 대선주자별 입장

문제인	재개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
안희정	조건부 재개	비핵화 협조 등 북한이 변화 보이면 재개
이재명	재개	공단 철수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
안철수	재개	남북 교류의 소중한 자산
손학규	재개	남북관계의 마지막 끈 끊은 건 잘못
유승민	재개 반대	재가동 시 역류 등 안전 문제 우려
남경필	조건부 재개	국제사회 제재 틀에서 관계 개선 후 재개

- 개성 공단을 활용 북한의 우수 SW 개발 인력을 Game SW , VR 콘텐츠 및 Big Data 처리 분야 등 안보적 위해 요소가 적은 분야부터 사업 협력 추진

개성공단 가동 중단 1년, 남북관계 현주소와 과제 현대경제 연구원 (2017.2)

## 관광 서비스 산업 관련 ICT Infra 구축 사업분야

### 변화 기로에 선 북한, 관광사업, 경제특구 개발 투자 유치 총력

정원화 의장 "지식교류 협력 통해 북한 개방에 도움 주길"

이윤희 기자 21083@ekn.kr 2015.06.23 13:58:01

트위트 페이스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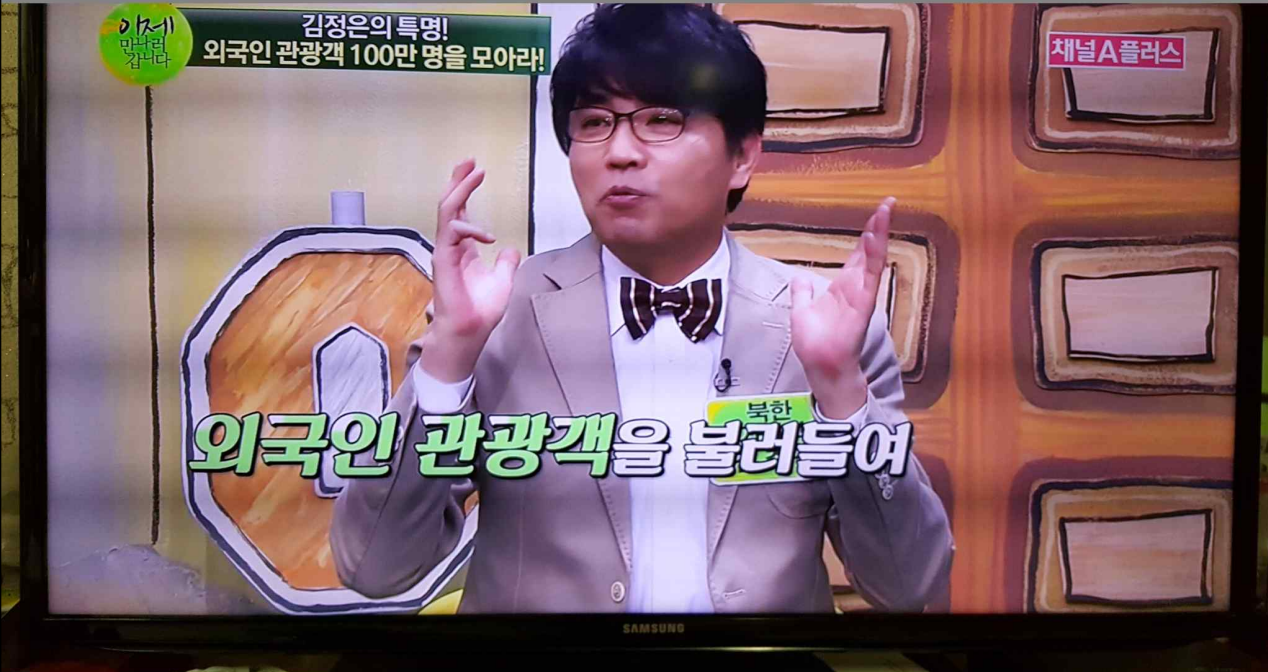
캐나다 어학연수 길라잡이



[에너지경제 이윤희 기자] "북한에도 최근 관광경제학과가 신설되는 등 관광산업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경제특구 개발과 대외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이 한창입니다."

2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북한관련 지식교류 및 경제특구 활성화' 간담회에서 박경애 소장은 "북한은 경제개발에 대한 의지와 관심이 대단하며, 외국 자본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관광 서비스 산업 관련 ICT Infra 구축 사업분야



2017.5.22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 방송 내용

●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

● 데일리한국 > 정치 > 최진기사

통일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여부, 북핵 해결 맞춰 추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장기적 과제' 강조  
 전날 대북접촉 '유연 검토' 발표에 이어 속도조절 나서

이정현 기자 jhlee@hankooki.com



자료사진=데일리한국

[데일리한국 이정현 기자] 23일 통일부는 전날 남북 민간교류 등에 대해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북핵 문제 해결에 맞춰 추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 '장기적' 추진 과제임을 강조하며 "북핵 해결에 맞춰서 한다는 단서가 달려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당국자는 전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를 금지한 5.24조치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http://daily.hankooki.com/page/politics/201705/dh20170523143640137590.htm>

● 전력 문제 해결 필요



21

Reuters  
WizMeta

● 남북 협력을 통한 4차 산업 혁명 Global Leadership 확립 사업

# BlockChain 기술 국제 표준 규격 제정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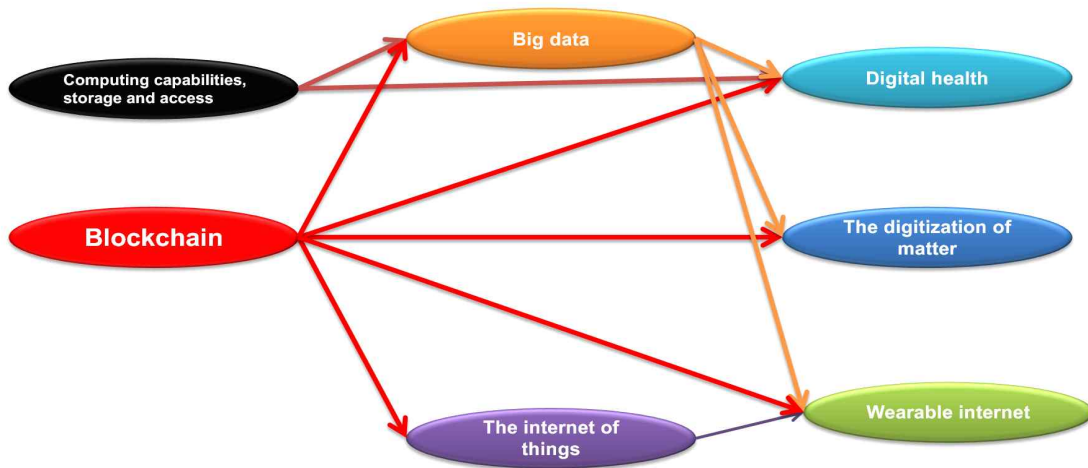
22

WizMeta

남북 협력을 통한 4차 산업 혁명 Global Leadership 확립 사업

Blockchain as “the Infrastructure of Everything”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7대 기술 중 4대 기술의 기반 기술



23

WizMeta

남북 협력을 통한 4차 산업 혁명 Global Leadership 확립 사업

WEF: The 7 technologies changing your world

1. Computing capabilities, storage and access
2. Big data
3. Digital health
4. The digitization of matter
5. The internet of things
6. **Blockchain**
7. Wearable internet

<https://www.weforum.org/agenda/2016/01/a-brief-guide-to-the-technologies-changing-world/>

24

WizMeta

## ● Block Chain 정의

- 탈중앙화된 분산 공유 정보 저장 기술 (Decentralized distributed shared-information storage and its technology)
  - 분산된 네트워크의 컴퓨팅 자원을 모아 거대한 연산능력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앙서버 없이 모든 작업을 처리하고 검증하는 기술
  - 블록체인은 블록(Block)을 잇따라 연결한 모음으로, 상호간의 거래에 대한 모든 기록을 시간 순으로 블록에 남기고 이를 참가자 모두에게 나누어 공개한 일종의 거래장부
  - 정보가 중앙서버가 아니라 참가자의 컴퓨터에 저장되는 점과 거래의 확정이 참가자간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거래처리 및 관리 방식과 상이

25

WizMeta

## ● 남북 협력 BlockChain 기술 국제 표준 규격 제정 리더쉽 구축

- BlockChain 기술 관련 국제 표준 규격 제정 관련 기구
  - W3C (World Wide Web Consortium) BlockChain Community
  -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TC307
- 현재 W3C BlockChain Community 및 ISO TC307 양대 기구 중요 위치에 한국이 포진했음
  - W3C BlockChain Community 의장 : 이영환 박사
  - ISO TC307 산하 Identity 국제 표준 제정 그룹 의장 : 이영환 박사
- Block Chain 기술이 국제 표준화 추진의 극 초기 단계 (NP) 인바 표준 논의 최초 단계 부터 남북한 협력을 통한 공동보조를 취할 경우 4차 산업 혁명 기저 기술 분야에서 Global Leadership 확립이 용이
- 4차 산업 혁명기 기반 기술의 표준을 남북이 공유한다면 전자 상거래, 금융, 을 비롯한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되므로 향후 통일 비용 절감에 큰 기여 가능

26

WizMeta

## 남북 협력 BlockChain 기술 국제 표준 규격 제정 리더십 구축

프로젝트 단계와 관련 문서  
(Project stages and associated documents)

프로젝트 단계 (Project stage)	관련 문서(Associated document)	
	명칭(Name)	약어(Abbreviation)
예비 단계 (Preliminary stage)	예비 작업 항목 (Preliminary work item)	PWI
제안 단계 (Proposal stage)	신규 작업 항목 제안 (New work item proposal)	NP
준비 단계 (Preparatory stage)	작업 초안 [Working draft(s)]	WD
위원회 단계 (Committee stage)	위원회 초안 [Committee draft(s)]	CD
질의 단계 (Enquiry stage)	질의안 (Enquiry draft)	ISO/DIS IEC/CDV
승인 단계 (Approval stage)	최종 국제표준안 (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FDIS
출판 단계 (Publication stage)	국제표준 (International Standard)	ISO, IEC or ISO/IEC

2017.5.29 현재  
BlockChain 관련  
국제 표준 규격은  
전부 이 단계임

출처: ISO/IEC Directives, Part 1, Consolidated ISO Supplement, 2014

27

WizMeta

## 남북 협력 BlockChain 기술 국제 표준 규격 제정 리더십 구축

국제 기술 표준 규격을 장악하는 국가가  
관련 산업 분야 세계적 리더십을 장악합니다

따라서 ISO의 산업별 기술분과 위원회는  
총성 없는 전쟁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BlockChain 분야에서  
남북한 협력으로 초기단계부터 국제 기술 표준을 장악한다면  
한반도가 4차산업혁명의 세계적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28

WizMeta

## 영문 프로그램과 개요

### Opening Session (13:00 – 13:40)

Moderator: Min-Ji Jo (Director, Korean Society of Archival, Information and Cultural Studies)

Opening Address: Meung-Hoan Noh (President of Korean Society of Archival, Information and Cultural Studies)

Welcoming Speech: Geun-Myoung, Lee (Head of Institute of History and Cultur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elcoming Speech: Hae-Dong Lee (Director of Actionslove Corp.)

Congratulatory Address: In-Chul Kim (Vice-Presiden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Congratulatory Address (Video Message): Dr. Wolfram Hoppenstedt (Secretary General, Willy Brandt Foundation)

Congratulatory Address: Dr. Wieland Wagner (*Der Spiegel* correspondent)

**10 minutes break**

### Presentation Session (13:50 – 14:50)

Moderator: Ji-Bae Park (Institute of History and Cultur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Reflect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nd a Comparison of the Korean Sunshine Policy and German Ostpolitik: Dong-Won Lim (former minister of the Ministry of Unification, and President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The Legacy of Ostpolitik in the A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New Power of the Sunshine Policy: Meung-Hoan Noh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Information Technology Situations in South and North Korea: the Progres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Possibility of Change through Inter-Korean Relations: Chun-Won Park (Wismeta CTO)

**10 minutes break**

**Academic/Policy Discussion Session on the above presentation (from 15:00 – 17:00)**

Moderator: Kim Hong-kook (Professor, Kyonggi University and Broadcaster)

Panel:

Myeoun-Hoei Kim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s and Diplomacy, Department of Histor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i-Ho Kim (Ph.D. of Yonsei University)

Kyung-Hwan Choi (National Assembly member, The People's Party)

Han-Jung Kim (National Assembly member, The Minjoo Party of Korea)

Taek-Geun Kim (Editor of *The Kyunghyang Shinmun*)

Dong-Uk Im (BK 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inner

Support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Kim Dae Jung Peace Center, the Billy Brandt Foundation, and *The Kyunghyang Shinmun*